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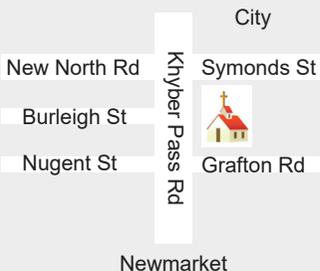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경건과 절제로 신앙성숙이 있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이번 주 성경 통독 범위는 요한복음 17장-로마서 9장까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시 119:43).
- 세례자 예비 교육이 오늘 2부 예배 후 3시 10분부터 느헤미야실에서 있습니다 (세례식:종려주일).
- 이번 주 수요일예배는 네팔 공동체 주관입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뜻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 오는 4월 8일(월)-12일(금)까지 한 주간 새벽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오전 5시 30분).
- 2남선교회에서 중고장터를 운영합니다. 집에 필요없으신 물건을 교회에 기증해 주시면 필요한 분이 적당한 금액을 내고 사가시게 됩니다. 모아진 금액은 선교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물건은 주방 아래층 방에 상시 전시할 예정입니다(물건 기부 및 구입문의: 장연식, 정현열집사). 4월 첫주부터 정식오픈
- 지난 23일 (토) 밀알 장애우를 섬겨주신 성도들에게 감사사를 드립니다(쿠키 개당 \$2).
- 제 29회 뉴질랜드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일시: 3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온누리 교회당
- 찬양대 부활절 찬양 연습이 30일(토) 오후 4시에서 7시까지 아래층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 새벽기도가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주소: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AM11:20
주일 2부예배	주일	PM1:00
청년예배	주일	PM3:15
수요일예배	수요일	PM7:30
새벽기도	금요일	AM5:30
유아부	주일	PM1:00
아동부	주일	PM1:00
청소년부	주일	PM1:00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이성철
부목사 : 이성훈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Be Strong and Take Courage

2019년 3월 24일 주일

2019 신앙생활 표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 3:14)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6

○ 주일 1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 청년예배

오후 3시 15분
기도 박민혜자매

○ 3월 기도 순서

2부예배
31일 정관영장로
4월 7일 박일영장로
수요일예배
4월 3일 이애란권사
4월 10일 기도회
청년예배
31일 이현섭형제
4월 7일 전한겸자매

○ 3월 예배안내

김철재/김은우

○ 3월 교회사역

8일(주일): 저녁기도회 (부부선교회)
10일(주일): 성경통독 시작, 사순절1
27일(수요일): 공동체 주관 수요일예배(네팔)
31일(주일): 성찬주일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찬양	찬양	주일찬양단
예배로 부름	이사야 55:1-2	인도자
◎ 찬송	15장	다같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261장	다같이
대표기도		박병민 장로
성경봉독	여호수아 2:8-14	인도자
찬양대 찬양	거룩하신 주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버려진 인생이 회복의 인생으로	이태한 목사
찬송	436장	다같이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445장	다같이
◎ 축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예배(네팔공동체 주관)

오후 7시 30분
인도: 이태한목사

기도	박현주집사	찬송	430장
성경봉독	히브리서10:19-25	중보기도	다같이
설교	격려하는 공동체/이태한목사	주기도	다같이

금주의 기도제목

1.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2. 성경통독과 말씀공부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사순절이 되도록.
3. 삶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도록.

선교와 증보기도

이번 주는 캄보디아 이형식 선교사 소식입니다.

샬롬 생명나무공동체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여의 간공여 프로젝트와 이후 1년의 안식년을 잘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하여 현장에서 처음으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에는 작은 일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현장에서는 웃을 일 웃지 못 할 일들이 함께 있었네요. 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겠죠. 부끄러움을 참고 용기를 내보는 아침입니다.

전도사의 무급휴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목회자 후보생의 길을 가고 있는 전도사에게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찾아 왔음을 봅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전도사와 교우들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주어서 저의 빈자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전도사에게 영적인 방향이 있었습니다. 역할을 온전히 감당치 못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오히려 교우들이 감당해 주었습니다. 제게는 간 공여수술 후 안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을 염려해서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도사를 데리고 고향으로 찾아가서 부모님을 뵙고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3개월의 쉼을 갖기로 단 문책성 휴가이기에 교회 사례비는 없습니다. 모두 동의하고 교우들과도 눈물로 기도하고 잠깐의 간격을 갖습니다.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나고 어느 훗날 추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 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지금도 이 찬양을 들으며 선교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안식년 후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요즘 생명나무장로교회 교우들과 예배 시간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저마다 어렵고 힘든 삶의 무게가 몸과 마음을 짓누르지만 찬양을 통해 주님을 높이고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고 있음을 표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예배 중에 울다가 웃다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영적인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제 설교 말미에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번역하여 설교 기도를 대신하여 함께 저를 따라 고백했습니다. 모두가 평평 울었습니다. 제게 고맙다며 바나나와 수박 돼지고기 한 덩이와 온갖 야채를 바리바리 싸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영혼과 마음의 갈급함을 주님 채워주소서.

기도제목

1. 자발적 기도운동이 더욱 불같이 일어나 전도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2. 서리집사 제직회가 세워지고 충성된 동역자들이 길러지도록.



캄보디아공동체



통가공동체